연예뉴스 스테이션

‘한밤의 TV연예’ 폐지…23일 마지막 방송

SBS 연예정보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가 23일 방송을 끝으로 폐지된다. 1995년 2월9일 방송을 시작한 이후 21년 만이다. 2일 SBS 측은 “내부 논의 끝에 연예정보 프로그램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휴식기와 재정비 기간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밤의 TV연예’ 방송 시간대에는 30일부터 ‘보컬 전쟁: 신의 목소리’가 방송될 예정이다. ‘신의 목소리’는 설 연휴 기간인 10일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방송돼 호평 받은 바 있다.

장기하 전 여친 사칭 누리꾼 벌금 300만원

자신을 가수 장기하의 과거 여자친구라고 주장하고, 장기하에게 스토킹까지 당했다는 소문을 퍼트려 약식 기소된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장기하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A씨는 2014년 12월 장기하가 자신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 스토킹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입건됐다.

‘프로듀스101’ 부정투표 방지 시스템 도입

엠넷 ‘프로듀스101’이 누리꾼의 부정투표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동일한 회원 정보로 다수의 ID를 만들어 투표를 시도하는 부정 투표 의심 건에 대해 ‘캡챠 시스템’을 도입해 철저히 방어하겠다. 다음주 진행되는 3차 투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명의 멤버를 선발하는 과정에 누리꾼의 온라인 투표를 반영시키는 ‘프로듀스101’는, 가상의 이메일로 트위터 계정을 생성한 뒤 ‘프로듀스101’ 홈페이지에서 동의 절차를 거치면, 한 명이 얼마든지 중복 투표할 수 있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을 일으켰다.

허일후 아나운서, 김지현 PD와 20일 결혼

허일후(35) MBC 아나운서와 드라마 ‘퐁당퐁당 러브’를 연출했던 같은 방송사 김지현(31) PD가 2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결혼한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주례 없이 치러지며, 허 아나운서의 절친이자 예비신부의 입사동기인 서인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는다. 2006년 MBC 공채로 입사한 허 아나운서는 현재 MBC FM4U ‘비포 선라이즈 허일후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김지현 PD는 작년 ‘퐁당퐁당 러브’ 연출을 맡았으며, 이 작품으로 제20회 아시안TV어워즈 단편드라마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편 3월 결혼할 것으로 알려졌던 연기자 오승현은 23일 경기도의 한 성당에서 1살 연하와 결혼식을 올린다.

코리델, 中 뉴스타일-하이룬과 파트너십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의 소속사 코리델 엔터테인먼트(코리델)가 중국 미디어 그룹 뉴스타일-하이룬과 독점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코리델 타일러 권 대표는 “뉴스타일-하이룬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통해 효율적으로 제시카의 중국 진출 및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뉴스타일-하이룬은 뉴스타일 미디어와 하이룬 미디어가 공동 설립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로 글로벌 아티스트 육성을 위해 설립된 회사다. 제시카는 솔로음반을 준비 중이다.

황치열, 중국 최고 예능 ‘쾌락대본영’ 출연

가수 황치열이 중국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후난위성TV ‘쾌락대본영’에 출연한다. 중국판 ‘나는 가수다’를 통해 현지에서 ‘황쯔리에 신드롬’을 일으킨 황치열은 5일 녹화에 참여한다. 황치열은 중국 예능프로그램 ‘천천향상’과 춘절 특집쇼 ‘2016 소년의 밤 춘완’, 정월대보름 특집쇼 ‘원소희락회’에 출연해 노래실력과 재치있는 입담으로 감각을 뽐냈다. ‘쾌락대본영’은 1997년부터 방송된 후난위성TV의 대표 예능프로그램으로 중국 내 영향력 1위, 전체 시청률 1위, 선호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책 랭킹

1위 책 정보보기

2월 17일~2월 23일, 자료: 교보문고

순위	제목	작가
1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혜민
2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3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채사장
4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5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6	라플라스의 마녀	히가시노 게이고
7	법륜 스님의 행복	법륜
8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김정운
9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사사키 후미오
10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돌아와요 아저씨’ 포스터 크레딧의 비밀

뉴스 인사이드

출연진 이름 순서에 예민…이름표로 해결 포스터 하나에도 보이지 않는 자존심 대결

화제의 드라마 KBS 2TV ‘태양의 후예’ 포스터에는 송중기·송혜교·진구·김지원 순으로 출연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여배우가 단독으로 주연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출연자의 극중 비중을 따져 남녀주연과 조연순으로 나열하는 건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해당 연기자들 역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경쟁작인 SBS ‘돌아와요 아저씨’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대체로 포스터 아래 부분에 표기하는 출연진의 이름을 여기서는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정지훈, 오연서, 이민정, 김수로, 김인권 등 연기자들의 얼굴 사진 옆에 이름을 갖다 붙였다.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자료에서는 출연진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박인환을 시작으로 김수로, 최원영, 김인권, 정지훈 순으로 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돌아와요 아저씨’ 홍보물에는 다른 드라마와는 달리 출연 비중 순으로 출연자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 사진제공 | SBS

●“내 이름이 왜 뒤에…?”

사실 연기자들은 포스터를 비롯한 다양한 드라마 홍보물에 게재되는 자신의 이름과 그 순서에 상당히 민감해 한다. 그 자체만으로도 연기자로서 자신의 위상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각 연기자의 ‘스타 파워’를 가늠할 수도 있다.

당초 ‘돌아와요 아저씨’도 그 출연 비중에 따라 정지훈, 오연서, 김수로, 이민정 순으로 이름을 올리려 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내부에서 ‘잡음’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연기자가 이름 순서를 두고 예민한 반응을 드러낸 것이다. 제작진은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며 조율을 시도하는 등 진땀을 빼야 했다. 결국 제작진과 출연진은 포스터에 연기자의 이름을 모두 빼는 ‘극약처방’을 선택했다.

●이름 순서는 자존심

이 같은 상황은 주연급 연기자들이 많이 포진한 드라마에서 특히 자주 빚어진다. 저마다 출연 분량도 비슷해 이름 순서를 정하기 모호한 까닭도 있다. 어느 누구라도 나서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자존심을 내건, 보이지 않는 경쟁이 벌어지곤 한다.

이런 ‘신경전’을 애초에 차단한 드라마도 있다. 지난해 방송한 KBS 2TV ‘프로듀사’다. 김수현, 아이유, 차태현, 공효진 등 톱스타급 연기자들이 대거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의 이름이 포스터 등 홍보물에 어떤 순서로 오를지 방송계에서는 관심이 많았다.

제작진은 누구나 받아들이기 쉽도록 ‘데뷔순’으로 하자는 의견을 냈다. 연기자들도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차태현·공효진·김수현·아이유 순이 됐다. 여기서 한 명이라도 “노!”라고 했다면 문제는 또 달라졌을 것이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연기자들은 포스터나 드라마 엔딩, 보도자료 등에 표기되는 이름 순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내부 논란이 커지면 나이나 데뷔 순으로 결정하는 게 상책”이라고 귀띔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태양의 후예’ 1, 2회가 국내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데 이어 중국 동영상사이트에서도 9000만 회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보이며 대륙을 흔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 태양의후예문화산업전문회사

‘태양의 후예’ 중국 인기 심상치 않다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아이치이 방송 1·2회 VIP 서비스 8840만 조회수 기록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중국시장을 흔들기 시작했다.

24일 첫 방송한 ‘태양의 후예’는 1회 14.3%(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2회 만에 15%를 돌파하며 이미 국내 안방극장을 장악했다. 그 기세를 중국으로 옮아가는,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태양의 후예’가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아이치이에서 공개되는 가운데 2일 오후 1시 현재 1회와 2회가 8840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3회 예고편은 624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이는 이 사이트가 ‘태양의 후예’를 통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VIP회원제에 가입한 이들의 조회수라는 점에서 드라마에 대한 현지 시청자의 높은 관심도를 드러낸다. VIP회원과 달리 일반회원들은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태양의 후예’를 시청할 수 있다. 또 VIP회원이 되려면 일정금액을 더 지불해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태양의 후예’를 향한 초반 관심의 정도가 향후 더욱 대폭 커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태양의 후예’는 국내 드라마 중 처음으로 중국과 동시 방송을 시도하는 작품. 그만큼 선례가 없던 탓에 초반 우려를 사기도 했지만 걱정과 달리 빠른 속도로 결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태양의 후예’ 제작발표회에 아이치이 사라 부사장이 참석해 “중국에서도 기대가 높다.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만족감을 표한 것도 이 같은 기대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커피프린스 1호점’ 중국판 나온다

강신효 PD 연출…하반기 방송 예정

2007년 공유와 윤은혜가 주연을 맡고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이 중국판으로 만들어진다.

2일 중국 에이전시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에서 하반기 방송 예정으로 드라마 ‘프린스카페’가 한창 준비 중이다. 현재 중국 톱스타가 물망에 올랐고, 방송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중국 스상미디어그룹이 제작하는 드라마의 대본은 한국 팬들에게도 유명한 드라마 ‘보보경심2’의 서이량 작가가 쓴다.

특히 2013년 드라마 ‘상속자들’을 만들었던 강신효 PD가 연출을 맡기로 해 눈길을 모은다. 강 PD는 ‘상속자’가 중국 위성TV에서 방송돼 돌풍을 일으키면서 현지에서 꾸준히 러브콜을 받아오다 지난해 프리선언을 했다. 강 PD와 호흡을 맞췄던 제작팀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지 방송가와 팬들 사이에서는 ‘상속자들’과 ‘커피프린스 1호점’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커피프린스 1호점’은 2009년 중국에서 선보였고 윤은혜는 이를 계기로 현지에 진출하게 됐다.

에이전시 관계자는 “중국 팬들 사이에서 ‘커피 남신’이라는 타이틀로 가상 캐스팅이 벌어질 정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면서 “한국의 주조연급 배우들도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앨범 공동구매도 음원 사재기로 처벌?

음원 사재기 규제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팬들 자발적 단체구매 행위도 처벌 우려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음원 사재기’ 규제 법안과 관련해 팬들의 자발적인 단체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가 가요계의 우려 섞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제작·배급·유통·이용 사업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기획사에 의해 팬들이 동원된 단체행동’도 그 대상이라고 명시함으로써 가요계에선 “팬들의 자발적인 집단적 소비도 처벌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요계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을 자칫 과잉 해석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팬들이 가수에 대한 ‘충성심’으로, 해당 가수의 음반이나 음원을 집단적으로 구매해 차트 순위를 상승시켜 응원하는 가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 일상화하고 있다는 근거를 내세운다. 팬들이 특정 시간 혹은 날짜에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이른바 ‘총공세’다.

문제는 팬들의 음반 및 음원 단체구매가 기획사에 의한 것인지, 순수한 팬심의 발로인지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가수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기획사와 공유하는 팬들이 기획사가 주도하지 않아도 암묵적 합의나 교감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콘텐츠산업실 관계자는 3일 “법안이 발효되기까지 정부와 음악산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일부에서 제기하는 적용의 문제에 대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 과정을 거쳐 엄격한 적용이 이뤄지고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황정음, 하와이서 박수진과 만날까

하와이 신혼여행…부부동반 모임 가능성

황정음(왼쪽 사진)이 하와이에서 달콤한 허니문을 즐기고 있다.

2월26일 네 살 연상의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인 이영돈씨와 웨딩마치를 울린 황정음은 예식을 마치고 며칠 휴식을 취한 뒤 1일 하와이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혼부부들이 첫 손에 꼽는 신혼여행지인 하와이에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2일 “황정음 커플은 신혼여행을 여유있게 보내려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며 “2일 하와이에 도착해 여장을 풀고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정음의 하와이행이 더 눈길을 끄는 것은 그의 친한 친구인 박수진(오른쪽 사진)이 현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수진은 황정음과 걸그룹 슈가로 활동했다. 슈가의 멤버였던 아유미와 한예원은 빠짐없이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박수진은 불참해 시선을 모았다. 박수진은 현재 남편인 배용준과 하와이에 장기 체류하고 있다. 당초 참석하려던 황정음 결혼식은 찾지 못한 대신 하와이에서 더욱 각별한 ‘부부동반’ 모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황정음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긴 휴식 없이 곧바로 출연 작품을 결정할 계획이다. 결혼식 직전 가진 간담회에서 그는 “쉬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결혼을 준비하다보니 재미를 느끼는 곳은 역시 촬영현장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의욕을 드러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